

설계특위, 미래세대에게 듣다.

1. 활동 취지와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12년을 준비합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미래보다 함께 만드는 미래가 실현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되도록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담기는 과정이 "공의"라는 '본의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설계특위, 미래세대에게 묻다' 활동은, 교단 4대의 중요 세대인 3040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실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미래 계획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희 4대 설계위원회에게는 교당-지구-교구의 현장감, 경험에서 오는 미래예측과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교구 및 교무님들께는 그간 조금은 동떨어졌던 설계자료→교정원정책→교구별교화정책 자료를 함께 보면 연결성 및 한계 개선점을 고민해보고, 각 교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환경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화 계획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4대 설계와 관련하여 교구와의 연결점은 '교구자치' 또는 '교구자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 대상 : 14개 교구 소속 3040세대 교무

3. 소요시간 : 교구마다 별도 상의 (최소 1시간 30분 내외)

4. 활동 방식(교구상황에 맞춰서 진행 예정)

교구 청소년교화학교 시간 일부 할애 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별도 시간

(1)사전 자료(영상 및 PDF파일) 제공 (2) 간담회 진행. (3) 설문지 링크로 세부 의견 수합

5. 간담회 질문 배경

1) 현장 중심 설계 - 현) 설계특별위원회 운영 주제와 동일시하여 위원들의 회의 및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놓고 내년 시나리오 작성에 참고할 예정

2) 미래세대의 교화 현장에 대한 감상 및 발전 가능성 모색

- 4대 설계특별위원회의 큰 특징은 '미래세대'.
- 미래의 주역이 미래를 직접 디자인 해보자는 취지.
- 현장경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가능한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 단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단 자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교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배경도 있음.

3) "연결, 지속가능" 3대 설계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계자체가 교정원 중심으로 짜여짐. 그 결과, "수위단-교정원-교구-지구-교당"의 연결성에 한계를 보임.

이에 4대 설계는 교정원-교구-교당의 연계를 염두하기 위한 취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유연함과 자율이 필요하기에 교구자치

6. 경과보고

- (1) 원기 107년 9월 7일 경기인천교구
- (2) 원기 107년 9월 28일 부산울산교구
- (3) 원기 107년 10월 12일 서울교구
- (4) 원기 107년 10월 13일 경남교구
- (5) 원기 107년 10월 18일 전북교구
- (6) 원기 107년 10월 18일 강원교구

(7) 원기 107년 12월 ~ 다른 교구와 협의 예정

7. 설문지 질문 내용

[전무출신정체성]

1-1. 현장을 경험하면서 과거를 되돌아 볼 때, 교학과-대학원 교육기간동안 현실적으로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교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논 의 사 항	- 회계자료(자금보고서, 운영보고서) 읽는 법. 원티스 실전 업무.
	- 교화방법. 주임교무님 관계법. 현장에서 도움되는 슈퍼바이저.
	- 몸 공부. 당양한 자격증. (동양, 서양) 철학. 실천정신.
	- 교법에 대한 전문성. 대종사님 역사와 발자취 현장체험. 구인선진에 대한 이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불법의 대의 연구. 명확한 교리해석과 응용력을 키우는 것.
	- 대학원 과정 크게 필요 없다 생각. 교학과 뒤에 바로 현장근무, 이후 대학원은 전문연구화. 현재 대학원 실천교학은 현실에 맞지 않음. 설교능력과 의식 진행능력.

1-2. 교무 호칭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논 의 사 항	- 별 생각이 없었으나, 봉공직 전문직 교무님들의 생각이 궁금함. 그분들의 입장에 따르고 싶음. 생각이 없다.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긍정적.
	- 주임교무 부교무도 교무로 호칭하면 좋겠다. 호칭의 구별은 중요치 않다고 본다.
	-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1-3. 내가 생각하는 전무출신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만약 교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전무출신 역할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논 의 사 항	- 최소한의 상식과 품위.
	- (개인의 서원이 아닌) 대종사님 서원, 전무출신의 도, 일원상의 진리로 정기 상시로 훈련하는 사람. 일과 준수. 청빈함. 강자약자진화상요법. 이소성대. 사무여한. 무아봉공의 정신. 불법을 주체삼아 성불제중을 위해 전력하는 사람. 공도자승배정신.
	- 출가교역자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 전무출신 정신의 강조가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전무출신의 도는 심계로 두고 교단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미와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한다. 교단법과 규정의 강화는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인 부분이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될 것 같다. 사람이 정립되어야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해진다.
	- 전무출신의 본질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무출신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실천으로 공부해나가는 모습 필요. 연마하고 궁구하는 모습이 중요. 수직적 관계가 해결되어야 함.
	- 전무출신의 역할은 교화에 있다고 생각.
	- 효율적인 인사제도 필요. 순환인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순환인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속소분리. 제도의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인사제도 전문성 필요. 쌍방향평가 필요.
	- 윗교무님과의 관계가 직장상하관계+가족+스승과제자 등 혼재되어 있어 MZ세대에는 어렵다.

[재가교도, 교회]

2-1. 현장에서 교구단위, 지구단위 또는 이웃교당과 연합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과정과 더불어 상황, 효과, 어려움, 아쉬움, 보완해야 할 점 등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 | | |
|------------------|--|
| 논
의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임교무님의 인식변화와 배려가 필요함. 교당에서 법회보는 것만 중요하고 교회라 생각하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윗교무님의 부정적 인식으로 활발히 하지 못하였다.- 내교당주의가 사라지면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일반교화 보조 등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유지가 쉽지 않다.- 시너지효과는 긍정적이나 특정 교당에 일을 떠맡는 경우가 있어 업무분장이 잘되어야 한다. 소위 때우기식 연합법회는 지양해야 함. 정책적으로 인접교당끼리 묶어서 활동하면 좋겠음.- 연합교화도 질적향상이 필요하다. 실적 중심 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행정상 나뉘어져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함께 묶어서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 창의적 교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교당은 다니지 않지만 학생회 모임 등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교화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
|------------------|--|

2-2. 우리 교법에 담긴 지역교화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컨텐츠가
교당(지구,교구)에서 시행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 | | |
|------------------|--|
| 논
의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울 교구에서 진행하는 '치음시데이', '해소명상'.- 마산의 경우 부마항쟁의 근원지로 천도재 등 지역이벤트가 있다.- 청년 청소년 활동. 마음공부의 사회화. 공개강의 할 수 있는 교무(유튜브 포함).
지자체와 연대 활동. 확실한 인지도 향상 필요. 지구 교구별 공동교화. |
|------------------|--|

2-3. 현장에서 '재가교도의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한계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있다면 적어주세요.

- | | |
|------------------|--|
| 논
의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시도는 긍정적.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은 출재가를 떠나있다고 생각함. 현재는 교무와 교도의 성향이 맞을 때는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 청소년교화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라 생각. 폭 넓은 교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기 위해 자치와 자율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함.- 실력적인 부분(교리, 교화, 훈련진행)등은 더 노력 필요.- 현)봉공회 뿐 아니라 교도님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재가교도를 무급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현재 재가교도 활용은 교육이 부족하고 의식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다.- 출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상을 없게 해야 한다. |
|------------------|--|

[대사회화, 세계화]

3-1. 현재 소속된 교구의 장점, 특징, 교화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더불어 00교구에서는 이렇게 교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 의 사 항	- 부산울산교구 : 특유의 솔직함, 결속력, 끼 많음. 지구별 지리적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몇몇 지역 재개발 지역에 교당이 편입되어 있어 교화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전북교구 : 후천개벽사상의 중심지, 지역교화에 힘써야 함. 연합교화 가능성. 청소년 특성화 교구. 가장 많은 전무출신. 모든 교무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원불교 기관이 많은 교구 중 하나다. 기관과 연계한 교화 가능성도 있다.
	- 경남교구 : 마음공부대학. 교구장배 탁구대회, 교리실천강연대회, 교구문화제 등 교구행사가 많아서 연합활동이 활발함. 교구 훈련원 건립이 필요함(수요가 있음). 부마항쟁의 근원지로 지역 컨텐츠가 있다. 부산의 영향을 잘 받는다. 김해의 경우 교당간 거리가 매우 가깝다. 경상도 지역 복지시설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남해지역 관광자원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
	- 강원 : 교구와 각 교당간 품앗이에 최선을 다하는 중. 각 교당 상황에 맞는 교당 계획 세우도록 안내 중.
	- 경기인천교구 : 저출산 시대 속 인구 밀집지역.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 및 인구유입 1위.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 가구수 최대. 신도시 개발 중.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인구수 대비 교당 분포 비율 최저. 가족교화 가능성이 높다.
	- 서울교구 : 시니어 거점교당, 다문화 거점교당 등 다양한 교화지도 가능, 1인 인구의 증가,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많다. 교육 거점.

3-2. 세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중앙 집중, 총부집중의 한가지 방향은 교화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바람직한 중앙총부-교구-지구-교당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는 독립적인 교구 교화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 정립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논 의 사 항	- 지역마다 공동체 필요. 유기적 관계 서로 믿고 도와주는 관계.
	- 총부는 총체적 관리. 교구에 살면서 교당파견제(숙식은 교구에서 근무는 교당에서). 총부는 다양한 사업으로 탄탄한 재정. 깊은 연구로 다양한 자료 제공하여 서포트 역할. 교구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당을 지원하는 역할과 지자체 연결. 지역적 특성은 살리되 총부 중심의 중심축이 있으면 좋겠다. 일관성 속에 다양함이 있으면 좋겠다.
	- 전무출신 개개인의 마음부터 살아나게 하자. 구성원들 챙겨야 세계화와 다양화가 가능하다.

3-3. 급격하게 ‘한류’가 세계 문화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첨단, 가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에 우리 법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원불교는 어떤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일반사람들이 통용될 용어로 바꿔 보면 무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논 의 사 항	- 감사생활의 실효화. 아이들의 가치관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 지역 외국인 유학생 교화 필요함.
	- 기후변화 환경문제, 영성, 마음공부
	- 모든 진리의 교지를 통합 활용할 수 있다.
	- 생활 속에 신앙수행하는 가르침을 알려준다.
	- 원불교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 포용과 변화무쌍함.
	- 대종사님 서품 말씀

8. 기타.

-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 힘이 빠진다. 과거자료를 살펴보면 좋겠다.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부터가 중요하다.
- 정책 및 활동에 변화되지 않고 반복됨에 피로감이 있다. 정책과 현장감의 거리감이 크다. 교무 활동에 교화자의 역할보다 교당관리자 역할이 더 크다. 인구분포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외부활동이 필요하다. 교화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 다양한 시도 자체가 필요하다. 길거리교화. 세대 담당교무도 교려할만 하다. ‘훈련’을 잊지 않아야 한다. 훈련=쉬지 못함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 한사람한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정책적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유가 필요하다.
- 혼자사는 교무님들도 청교협을 해야 한다.
- 교정원에서 전북교구와 활동하려는 실적성 활동에 피로감이 높다.